

[포토] 비정규직 오체투지 행진...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0.12.12 13:58

“죽음 없는 사회 만들어달라.”
 “죽음의 현장! 오늘도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
 “살인기업 보호하는 근로감독 필요없다. 최소한 산안법이라도 지켜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약칭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지난 10일부터 ‘더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오체투지 투쟁에 나서며,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끝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0만의 입법청원조차 묵살했다. 한 해 2천명이 넘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는 기업의 살인행위를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소한의 법적 조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조차 제정하지 않는다면 목숨보다 돈벌이가 중요한 살인기업들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12월 10일 “용균아, 일하다 죽지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가져올게”라고 모란공원에 안치된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에게 약속을 하고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오체투지 출발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유족은 아버지를 빨리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오열했다. 4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동료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동료가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는 울분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업의 돈벌이에 의한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는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살인을 방조하고 있으며, 매일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을 낼 것을 결의했다. 또한 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온몸을 길에 던져 행진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 밝히며 10일인 오늘 3일차 오체투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오체투지 행진은 14일(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오체투지. © 백승호 기자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